

“문학, 자기완성 위한 수행·사회적 복무 실천해야”

어두운 시대에 맞서는 자유정신, 자연과 하나된 순정한 정서를 빼어나게 노래한 곡성 출신 죽형(竹形) 조태일 시인(1941~1999)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의 올해 수상자가 가려졌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는 곡성군(군수 조상래)과 함께 ‘조태일문학상’ 여덟번째 수상자로 시집 ‘두텁나루숲 뒷간에 앉아’ (2025년 출판)을 펴낸 박두규 시인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두규 시인의 수상시집인 ‘두텁나루숲 뒷간에 앉아’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삶과 죽음 그리고 숲에서 길을 잃고 비로소 만난 깨달음의 여정을 설파하고 있다. 시인에게 두텁나루숲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숲 밖의 세상에서 숲 안의 세상으로 들어온’ 결단이자, ‘몸과 마음 모두 자본에 절여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절대 균형을 이루는 우주의 저울추’를 찾기 위한 치열한 수행의 공간으로 읽힌다.

시집의 제목이 된 ‘뒷간’은 그 중심이다. 시인은 그곳에 쪼그려 앉아 ‘안개가 걷히며 강이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을 통

‘제8회 조태일문학상’에 선정된 박두규 시인

수상시집 ‘두텁나루숲 뒷간에 앉아’ 깨달음 설파

“생명 존엄과 공동체 가치, 목직한 언어로 증언”

시상식 9월 12일 오후 3시 조태일시문학기념관

해 ‘경이로운 풍경 속 점 하나’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요 속 오랜 어둠에 젖어 스스로 빛나는’ 존재의 본질과 마주한다.

이 깨달음은 ‘사랑’으로 완성. 시인은 사랑이야말로 ‘숲과 자칫거리를 잇는 오롯한 길’이며, ‘시작부터 완성된 사랑’임을 노래한다. 결국 이 시집은 ‘두텁나루숲’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출발해 ‘나’를 넘어 ‘그대’에게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한 시인의 감동적인 영적 순례의 기록이다.

또 이번 시집의 핵심은 ‘영성’에 대한 깊은 탐구다. 특히 4부 ‘사랑의 완성’은 인도와 영적 스승 슈리슈리 아난다무르티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

다. 시인은 ‘완전성을 성취하려는’ 우주적 노력인 ‘사다나(Sadhana, 영적 수행)’의 길을 걷는다. 이는 ‘나를 육체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이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소멸하고 온 우주를 다만 사랑하는 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 것은 언어의 태도이다. 이 시집은 현실을 과장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사물 하나, 풍경 하나를 오래 바라보는 인내 속에서 시대의 상처와 인간의 존엄을 드러낸다. 박두규의 시는 잔잔하고 고요하다. 지리산 바위틈에 홀로 피어 있는 구절초처럼 조촐하다. 박두규의 시는 담백하다.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는다. 늘 조용하게 말을 걸어온다. 조용하게 말을 걸어오지만 언어가 주는 파동이 있다. 그 파동이 읽는 이를 가만히 흔들며 공명(共鳴)하게 한다. 절제된 언어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어 내며, 생명의 미세한 결을 놓치지 않는 감각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 성찰하게 한다”고 평했다.

박두규 시인은 “사는 일에 있어서 아니, 글을 쓰는 일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균형감각이다. 몸도 균형감을 잃으면 바로 설 수 없지만 마음 또한 균형감을 잃으면 평안(平安)하지 못하고 매사에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와 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 삶에

서 성통공완(性通功完)의 노력과 함께 이뤄진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삶이 그럴 것지만 문학이라는 것도 자기완성을 위한 수행과 사회적 복무를 위한 실천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를 써 왔다. 시를 읽어주고 고개도 끄덕여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자인 박두규 시인은 전북 임실 출생으로 1985년 ‘남민시’(南民詩) 창립동인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1992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사과꽃 편지’, ‘당물샘’, ‘숲에 들다’, ‘두텁나루숲, 그대’, ‘가여운 나를 위로하다’, ‘은복서 피고 지는 조울의 시간 속에서’, ‘두텁나루숲 뒷간에 앉아’, 산문집 ‘지리산, 고라니에게 길을 묻다’, ‘생을 버티는 문장들’ 등 다수를 펴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총상금 2000만원 및 조태일 시인의 대표 시 ‘국토서시’를 새긴 고(故) 정병래 작가의 전작 작품을 부상으로 시상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디지털갤러리에서 ‘2026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향해 자원봉사자 나선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성료...900여명 친절·안전 실천 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디지털갤러리에서 ‘2026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자와 시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자원봉사로 잇는 섬박람회, 세계를 향해 여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여수시립국악단의 시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대표 위촉, 결의문 낭독, 출항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다봉이’는 친절과 안전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운영을 다짐하며 시민 화합의 의지를 모았다. 이들은 박람회 기간 행사장 안내와 관람객 편의 지원, 교통·질서유지,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따뜻한 환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얼굴이자 성공 개척을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군-서울 서대문구 청소년, 자매결연 교류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서울 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장흥군과 서울 서대문구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 교류활동

이번 교류활동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으로, 자매결연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기관 견학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양 기관 청소년 교류의 지속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끄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0311@

근로자 건강 최우선...‘냉풍조끼’로 더위 극복

나주시, 구슬땀 현장 찾아 냉풍조끼·냉방물품 전달
윤병태 시장 “재난급 폭염 지속...안전·건강 지켜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야외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며 폭염 대응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공원·노숙자 관리와 도로 유지보수 등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운영질환 예방을 위해 냉풍조끼를 전달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냉풍조끼 지원은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근로자들의 체감온도를 낮추고 운영질환을 예방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원·노숙자 관리와 도로 유지보수, 보행자 도로 정비 등 현장 업무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

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윤병태 시장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운영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냉풍조끼 지급과 함께 폭염 기간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시원한 물과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폭염 상황과 작업 여건을 수시로 점검해 근로자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등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의 경관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현장 근로자의 냉풍조끼 착용을 돕고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책무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과정에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냉풍

조끼를 지급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니 물과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며 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한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서관 문화마루, 폭염 속 문화피서지로 ‘인기’

누적 방문객 12만명 돌파
문화·휴식 공간 자리매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문화마루’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휴식과 문화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피서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개관한 문화마루는 누적 방문객 12만명을 기록했다.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1만4000여명이 찾은 등 시민들의 대표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휴식 공간이자 인공지능 바둑로봇 체험, 보드게임, 피아노 연주 등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이다. 창작활동 공간인 ‘사부작공작소’에선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서관은 현재 무더위를 날릴 ‘범



전남도서관 문화마루.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인은 이 안에 있어’를 주제로 공포·추리 도서를 비롯해 인기도서, 그림책, 만화 등을 큐레이션하며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 중이다.

또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이 소장한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여름 계절에 맞춰 진행한 전시도 큰 인기다.

문화마루 특성을 살린 시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책들 소리에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는 ‘오름은 낭독’, 낡고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활용하는 ESG 수선 워크숍,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는 원데이클래스 등이다. 오는 12월까지 순차 진행된다.

커뮤니티에선 독서동아리 등 모임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며, 지역 독서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서관 관계자는 “문화마루는 독

서와 예술, 체험,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마루 운영 프로그램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88-523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기자 holbul@